

팩트와 공감이 부딪칠 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경찰관을 포함해 12명을 살해하며 연쇄 강도를 일삼은,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라는 범죄자 커플이 있었어.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며 다녔는데도, 당시 암울했던 시대에 대중의 미움을 받던 은행 등을 공격하니 마치 의적 같은 이미지로 미화돼 인기를 얻었지. 납치한 강도 피해자를 외딴곳에 풀어 주거나 돌아갈 여비를 줘준 것도 한몫했고.

경찰의 추격 끝에 사망한 그들의 장례식장에는 2만 2,000명에 달하는 군중이 운집했다고 해. 이 커플을 미화한 소설이나 영화도 많아. 너무 미화가 심하니 얼마 전에는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하이웨이맨>이라고, 경찰 입장에서 찍은 영화가 나올 정도라니까.

지독한 흉악범이 영웅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반대로 경찰이 악당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며 자네는 뭘 느끼나?

세상일이란 웬고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의 문제야. 영화를 볼 때나 실제에서나, 나쁜 사람에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동정하기도 해. 정치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고, 마케팅에서도 물론 그래. 작은 잘못으로 회사가 문을 닫는가 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진심 어린 사과가 대중의 공감을 얻어 용서되기도 하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신나게 대학생 활을 즐기느라 공부는 등한히 해.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아. 나도 그맘때 그랬고.

그러다 2학년이 되면 슬슬 진지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고등학생 티를 못 벗는 학생들이 있지. 3월 새학기 첫 시간에 들어가면 1학년처럼 와글와글 떠들고 집중을 안 해.